

사과문

안녕하십니까.

사이버보안학과 소학회 HaMer 회장 송동건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정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생대표이자 학과 소학회 회장으로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회의와 학생자치 활동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저의 부족함과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학생회 관계자분들과 학우분들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자치 활동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무단 불참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대표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함께 활동해주시는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점 또한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의 태도와 책임감을 다시 돌아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와 소통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및 학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6년 5월 11일

사이버보안학과 소학회 HaMer 회장 송동건